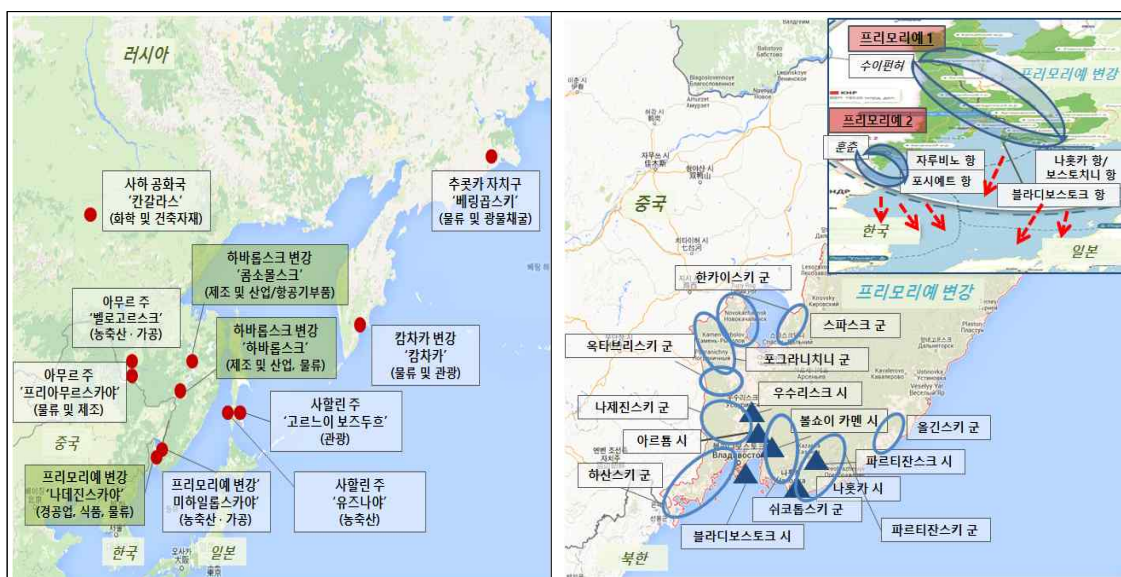


러 극동 선도개발구역법 발효 1주년, 현황과 전망

■ ‘16.3.30일 러 극동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Территория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TOR; 이하 선도개발구역)’ 법안이 발효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금까지 총 12개의 구역이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됨.

- 선도개발구역은 러 정부가 新동방정책에 기초하여 극동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례없는 세제혜택, 인프라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해 극동 지역 내 우호적인 비즈니스, 투자 환경 조성 및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 ‘14.12.29일 선도개발구역 법안 승인(‘15.3.30일 발효) 후 ‘15년 초 9개 구역*을 지정했으며, ‘16.1.28일 ‘볼쇼이 카멘’(프리모리예 변경)에 이어 3.17일 ‘고르노이 보즈두흐’ 및 ‘유즈나야’(사할린 주)를 추가로 승인함에 따라 현재 선도개발구역은 총 12개로 확대된 상황임(그림 1 참고).
- * ‘15.2월 ‘하바롭스크’, ‘콤포스스크’(하바롭스크 변경), ‘나테진스카야’(프리모리예 변경) 등 3개 구역을 우선추진대상으로 선정(‘15.6월 승인) → ‘15.4월 프리모리예 변경을 비롯하여 사하 공화국, 캄차카 변경, 추코트카 자치구에 각 1개씩, 아무르 주 2개 등 총 6개 구역 추가 지정(‘15.8월 승인)

그림 1. 선도개발구역(左)과 자유항(右) 추진 대상지역 (16.3.30일 기준)



자료: 구글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KIEP 동향세미나

■ 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 추진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민간자본 투자에 기반한 새로운 극동개발 투자 메커니즘이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16.3.30일 기준 110개의 투자사업(투자 규모는 총 4,423억 루블) 신청 *이 완료됨.

* 참고로 ‘15.12.25일 기준 신청된 투자사업 수는 87개이고, 이 가운데 16개의 투자계약(1,644억 루블 규모)이 체결됨.

○ 선도개발구역 인프라 구성에 필요한 필수예산 354억 루블을 고려할 경우, 현재 정부예산 1 루블 투입 시 민간자본은 12.8 루블이 투입되는 구조임.

— 극동개발부는 지난 1년 간의 대표 투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제시했으며, ‘16년 내에 20여 개의 투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구역명칭	지역	입주자	사업 내용	현황
나테진스카야	프리모리에 변경	EUROPLAST (러)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장 건설사업	완공(‘15.10월) 후 운영 중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변경	JGC Evergreen (일본)	온실단지 건설사업 (채소 재배)	1단계 완료, 일부 수확작물 지역 내 판매 중
프리아무르스카야	아무르 주	S. Technology (러)	시멘트 공장 건설사업	건설 중

○ 선도개발구역의 주축투자자(Anchor Investor)는 러시아 기업이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거나 논의 중임.

* (일본) JGC Evergreen이 하바롭스크 구역에 최신 온실단지를 조성 중이며, Sojitz도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사업 논의 중

(중국) 정유소 건설(쿰소몰스크 구역) 및 철강·벽돌공장 건설사업(칸갈라스 구역) 투자 논의 중¹⁾

(한국) 보건·의료, 항만, 농수산 분야 협력 논의 중

■ 극동개발부는 지난 1년 동안 선도개발구역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²⁾ 법 발효(‘15.10월), 극동개발펀드(‘11년 설립)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

1) 중국은 러시아와 합의한 신실크로드 구상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연계 협력사업을 모색 중이며,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15.12월 러-중 농업투자펀드(RCFAD) 조성 협정 체결(농산물 생산·가공 분야 수출지향 프로젝트 추진 목표)/ 프리모리에 1, 2 등 국제운송로 개발 협력 진행 중/ 러 극동지역에 중국 기업의 생산설비 이전 가능성 검토(합작회사 설립 등 세부 사항 논의 중)

2) 선도개발구역이 극동지역 내 수출지향적 산업 육성을 추구하고, 자유항은 교역 및 국제화물 유치 확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

KIEP 동향세미나

- '15.7월 승인된 자유항 법안('15.10월 발효)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등 15개 시·군과 동 지역 내 국제운송로인 프리모리에 1, 2*를 포함한 프리모리에 변강 남부 지역을 포괄함(법안 논의 단계에서 승인 당시 13개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 그림 1 참고).

* 프리모리에 1: 하얼빈-수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항, 나훗카 항, 보스토치니 항-아태지역 항만

프리모리에 2: 창춘-지린-훈춘-포시예트 항, 자루비노 항-아태지역 항만

- '16.3.16일 최초 5개 업체와 계약(13억 3,400만 루블)을 체결했으며, 최신 수산물 냉동 및 저장 설비, 스포츠 및 관광 단지, 중고타이어 가공 플랜트, 물류 센터 건설 프로젝트 등 추진 예정
- 극동개발펀드는 설립 후 사업성 검토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15년에 6개의 극동개발 프로젝트³⁾에 232억 루블을 투자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사업을 모색하기 시작

■ 선도개발구역 조성사업을 비롯한 극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15년 극동 지역의 산업생산 및 투자 실적은 러 전역에서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16년에도 상기 극동개발 사업들에 대한 추진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 '15년 극동지역 산업생산지수는 1.0%(러시아 전체 -3.4%), 고정자본지출은 1~11월 기준 4.6% 증가(러시아 전체 -9.5%)했으며, 특히 고정자본지출은 러 9개 연방관구 가운데(크림 연방관구 통계 미발표) 유일하게 증가
- 유리 투르트네프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이자 부총리는 '16년 연방예산 감축 계획('16.4월 수정 예산안 검토 예정)과 관련하여 극동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은 없다고 강조⁴⁾
- 다만, 현 시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면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올 지는 지켜볼 필요
 - 특히 자유항 관련 '외국인 무비자 8일 입국' 혜택이 당초 '16.1.1일에서 '16.7.1일로 미뤄진 바 있고, 기존 '16.10.1일로 고지된 통관 간소화 실행 여부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

<러 극동개발부, 러 통계청,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코트라 무역관 외>
(강부균 전문연구원)

3) 극동개발펀드(2016). Project 참고(<http://www.fondvostok.ru/deyatelnost/proekty/>).

4) 러 정부는 '15.12월 승인된 2016년 예산안(수입:13조 7,380억 루블/지출: 16조 990억 루블/ 예산적자: GDP의 3% 수준)이 평균 유가 배럴당 50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유가 하락 전망을 감안한 예산 감축 논의 중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